

2014. 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4.7.29.	대전MBC 대회의실	8/10	8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송인덕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서영석 사업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9	-	2	18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0	8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6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게스트 섭외 시청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게스트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섭 외	6월
교양	시사 프로그램 사안과 관련 적절한 영상 자료 필요	시사 프로그램 사안을 설명하는 영상 적절하게 편집	6월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PD의 역할 부여 필요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제작PD 역할과 기능 부여	6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스튜디오 영상구성 다양 하게 할 필요	스튜디오 영상 샷 구성시 지미집 활용 다양한 샷 구성	6월
교양	아나운서의 '같습니다' 표현 수정	언어 교육 강화 '같습니다' 표현 지양	6월
보도	뉴스제작시 기사관련 인터뷰 시의적절한 사람을 인터뷰할 필요 있음	뉴스제작시 인터뷰 내용에 맞는 대상 을 인터뷰	6월
보도	4대강 관련 금강 수질 지속적으로 관심	금강 관련 수질오염 등 계속적 취재	6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의 초대석 코너 진행자와 게스트 간 호흡 필요	사전 리허설 강화로 게스트와 진행자 간 자연스런 대화 유도	6월
보도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공약 실현 지속적으로 주시	토론, 또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감시기 능 가동	6월
보도	지방대학에 대해 관심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 유도를	뉴스를 통해 지방대학 어려움 극복과 발전방안 소개	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7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대전MBC 창사 50주년을 맞은 올 한해는 대전MBC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한다. 이미 크고 작은 창사관련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시작됐고 ,특히 이달 초 부터는 ‘ 피카소와 천재들’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워낙 전무후무한 행사여서 개막 전후에는 방송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PR의 연속성이 뒤따라야 겠다(김학선).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방송홍보는 창사 50주년의 가장 큰 사업인 만큼 2월부터 PR 방송을 진행했으며 전시 개막이 임박한 6, 7월에 집중했다. 7월 2일 전시 개막 이후 외부 요청 다른 PR과 캠페인, 자체행사 등의 PR이 많아 현재 TV 송출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방학을 맞아 늘릴 계획이다. 노출빈도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TV 1일 5회, 라디오 1일 20회 정도는 방송하고 있다.	○		
교양	대전MBC의 50년을 되짚어보면, AM 765KHz의 역사인 셈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방송환경의 변화 속에 TV로의 쓸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창사관련 행사와 프로그램들 중 라디오는 어디쯤에 서 있는 지 궁금하다. 한때 지역민들 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갔던 라디오의 전성시대는 이제 다시는 건너올수 없는 강을 건너 간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올해는 뭔가 달라져야 할 듯싶다. 이제는 지난 50년을 이어온 대전MBC 라디오의 자화상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MBC 현관을 들어서면 마주치게 되는 열굴들... 환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는 대전MBC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사진들 속에도 라디오 진행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녕 라디오 스타들은 없는 것일까?(김학선)	감성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이다. 버스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야구장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이다. 창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들면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표준FM 4시간, 음악FM 6시간 생방송) 등을 기획하고 있다. 라디오 진행자의 사진도 홍보게시판에 부착할 예정이다.	○		
보도	주말 저녁 TV뉴스에서 앵커가 지역 기상정보를 전하면서 “내일 대전과 충남지역은 오전 중 박무나 연무가 예상 됩니다.”라고 말했다. 방송언어는 주로 청각에 호소하는 일방적인 말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말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무나 연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청자들은 몇이나 될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무는 얇게 낀 안개를 말 하고(↔농무), 연무는 고운 먼지와 그을음이 공중에 떠서 뿌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그리고 안개는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아주 작은 물방울이 되어 대기 속에 떠 있어 연	날씨를 비롯해 전체 기사에 대해 어려운 용어를 자제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시부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p>기처럼 보이는 현상이라 한다. 다음날 아침 KBS 뉴스광장에서는 “대전 박무, 서울 박무”라고 TV화면 하단 구석에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시간대 SBS 뉴스에서는 “대전 안개, 서울 안개”로 자막 처리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의 판단은? 방송언어는 생각하게 하는 말 이어서는 안 된다. 방송언어는 쉽게 풀어써야 한다. 듣는 사람의 이해를 가로막는 난해한 한자어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학선).</p>				
<p>보도</p>	<p>대전MBC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8천여 명이 매일 1m를 걸을 때 마다 1원씩 모은 2억 원이란 큰돈으로 뜻 깊은 기부활동을 펼친 사연을 보도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기금 모금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건강을 키우면서 사회공헌에도 참여할 수 있는 ‘1미터 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로, 걷는 재미와 사회공헌 요소를 잘 조화시키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행 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주효했다. 대전mbc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미터 희망나눔’ 캠페인 보도를 통해 생활 속 작은 나눔 실천사례와 생각처럼 기부가 어렵지 않음을 알려 주었다. 하지만 화면구성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1m에 1원씩’ 걸기로 나눔 실천] 이라는 뉴스 제목과 자막을 내 보내면서 화면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례자를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순간, 걸기운동에 웬 자전거 ??, 그럼 자전거도 1m마다 1원씩 기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전mbc 보도내용에는 없었지만 캠페인 참여자가 1m를 걸거나 자전거 10m 탈 때마다 1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이었다(장백기).</p>	<p>‘1미터씩 걸으며 나눔을 실천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사가 작성되다보니, 자전거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향후 기사와 화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p>		○	
<p>보도</p>	<p>언론의 힘은 강하다. 국민의 힘을 한곳에 모으기도 하고 정부정책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방송은 시의 적절했다고 하고 싶다. 이번 보도에서 대전mbc는 2꼭지에 걸쳐 격렬비열도에 대한 외국인 매각 가능성, 그로 인한 영토 주권 문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해 시청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일본과의 독도분쟁 및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독도 수호와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몇 년</p>	<p>서해 격렬비열도의 경우 중국과의 영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 뉴스 차원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첫 보도가 이뤄진 만큼 격렬비열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보도를 준비할 계획이다.</p>		○	

	<p>간 한 곳으로 쏠린 상태에서 중국과 제2의 독도분쟁 사례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서단 영해 기점 격렬비열도에 대한 대전 mbc의 보도는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말하면 언론이 가장 으뜸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대전mbc 에서는 이 섬이 가지는 중요한 특수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장백기).</p>			
<p>교양</p>	<p>테마기행 길에서 「내포, 천주교 순례길을 가다」 편(7월 8일)을 방송하였다. 당진, 예산, 홍성, 서산지역을 포함하는 내포 지역의 순례길을 소개해 주는 시간이었다. 내포 지역은 한국 천주교가 시작된 곳이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곳으로 천주교 성지로 불리고 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크게 이슈가 된 곳으로 본 방송에서 내포 순례길을 소개한 것은 시기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름다운 배경 음악, 영상과 함께 적절한 상황에서의 성우의 내레이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시청자들은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또한 리포터는 친근한 설명과 적절한 감탄사로 감동을 전달해 주었으며, 전문가와 동행을 통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의 측면을 보완해 주어 방송의 정보전달과 재미의 균형을 이루어 주었던 것 같다. 다만 본 편의 주제가 내포 순례길인 만큼 여러 순교지를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소개하였으나, 기존 ‘테마기행 길’ 방송의 취지였던 다양한 지방 명소의 소개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p>이번 테마기행 길은 로마 교황의 한국 방문과 충남 내포지역 천주교 성지에서 미사라는 뜻깊은 행사를 앞두고 미리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가보자는 기획의도가 담겨있다. 항상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지역의 명소를 발굴 소개하여 테마기행 ‘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소재를 잘 찾겠다.</p>	<p>○</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7월 16일편)에서는 여름을 맞이해 어린이들과 다녀 올 수 있는 체험마을, 야식으로 어울리는 맛집,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네 이웃을 소개해 주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모셔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모습과 인터뷰를 통한 정보 제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여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의 의견을 듣고 소개하는 모습은 방송과 시청자들 간의 쌍방향 교류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클 것이다. 다만 방송 도중 기기의 작동 오류가 생기거나 초청 전문가와의 진행자 간의 의사소통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p>	<p>시청자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교감한다. 지적인 것처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p>	<p>○</p>	

	<p>하는 모습은 생방송으로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오덕성).</p>			
<p>보도</p>	<p>시사광장 「민선6기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편(7월 13일)에서는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과 지역의 과제에 대하여 행정학과 교수,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대전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이때 공약 이행과 중앙 정부와 협력관계 발전방향,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여러 과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공격적인 토론이 아닌 절충과 합의를 통해 대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 시사광장의 방송의의와 통일되었으며, 시청자들도 공감하며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토론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직접적으로 시청에 참여하는 책임자들의 본 토론에 참여해 주었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오덕성).</p>	<p>「민선6기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프로그램은 민선6기 지방자치 출범을 맞아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성공적인 임기수행을 바라는 의도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시장과 의원의 토론 참석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임 단체장들은 직전에 한 명씩 초청해 6차례에 걸쳐 패널토론으로 방송했고, 이번 토론은 당선자들의 취임 시기에 맞춰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와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당의 지역 책임자와 직전 집행부 경험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를 패널로 초청해 당사자격 주체들에게 민선6기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p>	<p>○</p>	
<p>교양</p>	<p>건강플러스(7월19일)를 모니터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진행자 오프닝인사로 발건강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을 풀어내어 여름철 간과할 수 있는 발건강에 대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였다고 본다.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직장인들의 만성피로를 주제로 하여, 복분자, 깻잎, 전복을 재료로 하는 요리를 소개해주었다.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 중에는 배경음악과 영상미가 함께 잘 어우러져 보는 내내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TV 주치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나와 일상생활 중 머리를 다쳐서 생길 수 있는 머리외상에 대해 알기 쉽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강좌 형식의 프로그램 시청시, 강좌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진행자가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짚어 내고 현장에서 즉시 전문의에게 질문하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해답을 주었다. 다만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요망하는 것이 있다면, 강의내용을 시각자료를 통해 설명할 때, PPT 자료를 화면에 그대로 띄워 놓고 설명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시청자가 정적인 화면에 길게 노출되어 자칫하</p>	<p>건강플러스는 우리지역 시청자들에게 건강의 중요성, 평소 건강관리 방법, 건강에 좋은 음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TV주치의' 코너는 전문의가 출연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건강예방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청각 자료는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동영상 통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p>	<p>○</p>	

	<p>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화면상에 전문의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 놓고 강의를 이어가거나 동영상 자료 등 동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유지 시켰으면 하는 개선책을 요망한다(한찬희).</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주민 안전 위협하는 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다루었다(7월 18일). 외국의 선진도시에서 성공한 중앙버스전용차의 사례를 도입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한 case를 도안신도시에서 적절한지 짚어보는 프로그램이어서 눈여겨보았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법원의 행정소송 최종 심리가 다음 달에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여 시청자에게 흥미를 더해 주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존재에 대해 대전시와 도안주민 양측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시민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대전시측 인터뷰 대상자가 시민측의 인터뷰보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도 다소 부족하였다, 시청자 입장으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타당성을 따져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더욱 균형감 있고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전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된다(한찬희).</p>	<p>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찬반 의견을 사전에 숙지하고 촬영에 임한다. 특정의견에 쏠리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을 한다.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해 앞으로 제작시 유념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집중취재>라는 타이틀로 소개되는 뉴스 내용을 보면 일반 뉴스와 집중취재 뉴스와 별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 집중취재의 성격이 모호하다. 집중취재의 타이틀을 걸고 방송되는 뉴스는 일반 뉴스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성정모).</p>	<p><집중취재>의 차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고발성이 강한 리포트물을 강화하겠다.</p>			○
교양	<p>TJB의 <화통>은 게스트도 다양하고 스튜디오 구성 연출에서도 그러한 반면 대전 MBC의 <TV특강>은 단조롭다. 스튜디오 구성에서 방청객, 출연 게스트 등이 밋밋하다. 작은 스튜디오 홀에서 진행되는 <TV특강>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길 바란다. 프로그램 말미에 다음 출연자가 누군지 예고를 해주면 좋겠다(성정모).</p>	<p>TV특강은 13개 MBC가 공동으로 투자 삼척MBC가 전담 제작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직접 단독 제작프로그램에 비해 제작상의 순발력이나 변화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가능한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제작사와 논의하여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p>			○
기타	<p>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산뜻하다. 다시보기 화질이나 크기도 상당히 좋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 프로그램 VOD 다시보기에 프로그램 제목과 방영일자만 올라온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프로그램 소재목도 올라온 것이 있다. 이왕이면 프로</p>	<p>VOD 다시보기에 프로그램 제목과 방영일자,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았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다시듣기는 비디오 없이 오디오만 탑재한다. 영상이 없으니 당연히 오디오만 올려놓는다.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다시듣기</p>			○

	그럼 타이틀과 더불어 방영일자, 프로그램 내용도 같이 게재해 올려주길 바란다. 라디오의 경우 비디오는 없고 오디오만 나오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김명수).	는 동일하게 운영한다. 라디오 음악관련 프로그램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 올려놓지 않고 여타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올려놓는다.			
교양	<신나군>을 모니터하였다. 출연패널들이 회전의자에 앉아 팔장끼고 반말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영되었다.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설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품위 없어 보였다. 군대문화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코너를 제작 방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품격이 떨어져 보인다. 게시판을 찾아 검색을 해보니 이시간대 중앙방송의 <불만제로> 편성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김형주).	<신나군>은 군대 입대 대상 젊은이와 그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다보니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반영하여 제작을 해 조금 과장된 측면이 발생되었다고 본다. 해당 제작사(춘천MBC)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또한 '불만제로' 편성에 관련해서는 추후 개편논의시 검토를 해보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 모 빌라 화재 사건을 다루었다. 영상에서는 화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폴리스 라인을 비쳐주고 있어서 화재라기보다는 범죄사건 사고 현장을 느끼게 한다. 취재내용과 영상이 일치되길 바란다(유덕순).	화재의 경우도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시청자가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
보도	40여 년간 엉덩이에 바늘이 삽입되어 고생한 40대 여성이 건양대 병원에서 영증없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잘 마쳤다는 단신 뉴스를 접했다. 개인적으로는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이 뉴스가 과연 뉴스데스크에 소개할만한 뉴스밸류가 있는 것인지 제작진들은 한 번 고민을 했어야 한다(유덕순).	이색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사화했지 특정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뉴스는 아니다. 앞으로 뉴스 보도시 특정기관의 홍보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 기울이겠다.			○
기타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일기장>이 방송대상을 받은 것 시청자위원으로서 축하드린다.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아직 올려 있지 않다(김명수).	홈페이지 '다시보기'란에 탑재하였다.			○
교양	시사플러스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방송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피드백을 보고 싶다. 사안별로 묶어 별도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김명수).	시사플러스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향후 별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

대전문화방송(주)
305-7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도룡동) 대표전화 : (042)330-3114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
161 Expo-ro, Yuseong-gu, Daejeon, 305-740 Korea

담당: 정종건 전화: 330-3600 FAX: 330-3700

문서번호 : 대문방 경영심의 제309호 2014. 8. 6.
수 신 : 방송통신위원장
참 조 : 방송기반총괄과장
제 목 : 201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7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 201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



대전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김 창

